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6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도시경관 건축과	담당자 • 건축안전센터팀장 방용섭 ☎440-4761 • 담당자 이정영 ☎440-476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대형화재 예방위해 화재안전 공사비 30억 지원

- 인천시,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지원사업 TF 구성 ... 대형 화재예방 강력의지 -

- 3층 이상의 스프링클러 없는 복지시설, 목욕탕, 산후조리원 등..최대 2천6백만 원 지원 -

인천시가 화재에 취약한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산후조리원 등의 화재안전보강 공사비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올해 75개소에 국비 등을 포함 30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돼 기존 개정 이전의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시는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는 의무대상 건축물에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TF는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분야별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민간 사업신청 독려 및 사업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무대상 건물에 화재안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이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6)에 접수하면, 공사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공사비를 지원한다.

건물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최대 약 2,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TF 단장인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의무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겠다.” 고 말했다.